

BTS, '제임스 코든쇼' 출연...LA서 대면 콘서트도

그룹 방탄소년단이 11월 23일 미국 CBS 인기 토크쇼 '더 레이트 레이트 쇼 위드 제임스 코든' (이하 제임스 코든쇼)에 출연한다.

16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미국 스튜디오를 직접 찾아 진행자 제임스 코든과 인터뷰를 하고, '퍼미션 투 댄스' (Permission to Dance) 무대를 꾸민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11월에도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상으로 인터뷰하고, 한국에서 촬영한 '라이프 고스 온' (Life Goes On)과 '다이너마이트' (Dynamite) 무대를 선보인 바 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에 있는 이 방송 스튜디오를 직접 찾는 것은 지난해 1월 '블랙 스완' (Black Swan) 무대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이후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 촬영 후 송출하는 방식으로 출연해왔다.



▲ 사진=CBS

한편 방탄소년단은 이달 27~28일과 다음 달 1~2일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개최하는 오프라인 대면 콘서트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를 앞두고 로스앤젤레스가 들썩이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대면 콘서트는 코로나19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 마련됐다. 마지막 대면 콘서트는 2019년 10월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렸다.

방탄소년단이 대면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팬들은 열광하고 있다.

나흘간의 콘서트 티켓은 일찌감치 매진됐으며 수십 배의 '프리미엄' 까지 붙어 거래되고 있다. 공연장 인근 숙소는 가격 폭등에도 대부분 예약이 끝나 방을 구하기조차 어려움을 정도다.

방탄소년단은 다음 달 3일에는 미국 대형 음악 축제인 '2021 징글볼(2021 Jingle Ball 투어)' 무대에 선다.

'세서미 스트리트'에 한국계 캐릭터 등장



▲ 세서미 스트리트 새 캐릭터인 한국계 '지영' 사진 =세서미 스트리트 워크샵

미국의 최장수 어린이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에 한국계 미국인이 첫 아시아계 인형 캐릭터로 등장한다. 7살 지영이가 그 주인공이다. 1969년 이 프로그램의 첫 방송 이후 아시아인 인형 캐릭터가 등장한 것은 지영이가 처음이다.

AP 통신은 14일 세서미 스트리트의 새 주인이 된 지영을 단독 인터뷰했다.

지영은 인터뷰에서 "한국에선 전통적으로 이름의 두 글자가 각자 (독립적인) 다른 의미를 갖는다."며 " '지' 는 보통 똑똑하거나 현명하다는 뜻이고, '영' 은 용감하거나 힘이 세다는 뜻" 이라고 자신의 이름에 담긴 뜻을 설명했다.

지영은 전자기타 연주와 스케이트보드 타기가 취미라고 덧붙였다.

지영은 올해 추수감사절(11월 25일) HBO 맥스에서 방영되는 세서미 스트리트 스페셜 에피소드에서 처음으로 시청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지영이란 캐릭터를 창조하는 데 직접 참여한 한국계 인형술사 캐슬린 김(41)은 "지영이 '범 아시아계' 로 지칭돼선 안 된다." 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계 미국인은 (출신에 무관하게) '아시아인' 이란 단일체로 뭉뚱그려진다. 그래서 통칭으로 '한국계' 가 아니라 '한국계 미국인' 이라고 구체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며 "지영은 미국 출생이다." 라고 말했다.

제작진은 지영이 쇼를 시청하는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업스탠더' (upstander, 세서미 스트리트에서 만들어진 단어로 다수가 침묵할 때 앞장서 행동하는 사람의 의미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서미 스트리트는 어린이에게 평등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진 배우와 캐릭터들을 등장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리베리, 미국 9개 도시 투어

그룹 베리베리(VERIVERY)가 미국 투어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글로벌 행보를 펼친다.

베리베리는 오는 12월 5일부터 20일까지 총 3주에 걸쳐 미국 투어 '2021 VERIVERY 1st TOUR IN U.S.(2021 베리베리 첫 투어인 US)' 를 개최하며 전세계 음악 팬들을 찾아간다. 지난 2019년 데뷔한 베리베리의 첫 미국 투어다.

베리베리는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탬피, 달라스, 휴스턴, 세인트 루이스, 포트웨인, 클리블랜드, 해리스버그에 이어 마지막으로 뉴욕까지 미국 내 총 9개 주요 도시에서 팬들을 만난다.

차세대 K팝 아이돌로 성장하고 있는 베리베리는 지난 해 미니 5집 타이틀곡 'G.B.T.B.' 에 이어 'Get



▲ 베리베리 사진=젤리퍼쉬

Away(갯 어웨이)' 로 연이어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상승세를 탔다.

또 미국 유력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한국의 팝 밴드 베리베리가 싱글 'G.B.T.B.' 로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고 극찬하며 인터뷰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고 베리베리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베리베리는 지난 8월 발매한 'TRIGGER(트리거)' 를 통해서도 미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 K팝 송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글로벌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상화이라 오는 12월 미국 투어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베리베리는 이번 첫 미국 투어를 통해 히트곡은 물론 다채로운 무대로 매력을 여과없이 쏟아내며 팬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숫자퍼즐 정답

3	5	7	2	6	9	4	8	1
8	2	4	5	3	1	6	7	9
6	1	9	4	7	8	5	2	3
1	4	8	6	2	7	3	9	5
9	3	2	8	1	5	7	4	6
5	7	6	9	4	3	8	1	2
4	6	1	3	8	2	9	5	7
2	8	5	7	9	6	1	3	4
7	9	3	1	5	4	2	6	8

백천 운명철학원

뉴욕, 맨하탄에서 20년 만에 Laguna Woods, Irvine으로 이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언가 백천선생



백천 선생 (白泉 先生)

한국역술인협회 미주지구 회장
국제 예언가협회 이사장
1976. 한국역술인협회 정회원
1977. 대한 경심연합회 중앙감찰
1986. 세계 예언자 대회 동경
1989. 국제 예언자 대회 홍콩
2008. 한국 역술인협회 부회장
2008. 제20회 서울 국제 역학대회

신재사궁초재이방택이아상
수주합혼혼사향일름호호

영적과 학술을 겸비한 백천선생 감평

예정운/ 부부운/ 자녀운/ 직업운/ 사업운/ 재물운/
학업운/ 주택구입시기/ 이사운/ 집매매운/
풍수지리/ 방향/ 건강운/ 대인관계/ 동업운/
관재/ 소송/ 삼재풀이/ 방재예방/
*부부 특별 상담 (숫자운)

*코로나 사태로 당분간 전화상담만 받습니다.



909-347-0505



213-500-6363

2381 Via Mariposa W #2h, Laguna Woods, CA 92637